

“불교 DNA확산 중요”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미등 스님



“문화는 사상을 일반인들의 삶 속에 넣는 작업입니다. 문화재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교 DNA를 사람들의 삶 속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등 스님(사진)은 불교무형문화재를 발전시키는 최종 목표가 문화재 지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불교무형문화가 사회 곳곳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그 예로 <심청전>, <별주부전>을 꼽았다. 이 두 작품은 불교적 사상이 강하게 반영된 작품들이다. 그만큼 과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불교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서 판소리가 생겨날 만큼 사회 전반에 기독교적 색채가 강하다. 박동진 명창의 ‘예수전’은 한국 판소리 최초의 성서 판소리로 기록돼 있다.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음악과 미술은 서양의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많다.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했지만 우리는 내 고장의 아리랑조차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미등 스님은 “불교무형문화의 쇠퇴와 함께 불교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문화콘텐츠 개발과 학술 연구를 통해 일반인들의 삶 속에 불교무형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문화재 지정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문화재 지정 넘어 사회적 확산 고민해야

불교 연등회가 1월 27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됐다. 유형문화재에 이어 무형문화재 분야에서도 한국불교의 문화적 가치가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지정 여부가 불교 무형문화 발전의 필수조건은 아니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식·제례 소홀 무형문화발전 저해
조계종, 올해 안 로드맵 수립 계획

무형문화유산은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 발전과 생활 속 불교 확산에 기여한다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대표적 불교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그동안 불교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해 7월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을 보류한 뒤 몇 차례 관련 회의를 열었으나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정부의 전통문화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결국 불교계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라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연등회를 비롯한 불교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불교계 관심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불교 무형문화유산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대고종 영산재가 유일했다. 유형문화재의 60% 이상이 불교문화유산인 것과 대조적이다.

불교계에서는 이런 대조적 현상이 수행 중심의 풍토에서 빚어낸 무형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정부의 불교 몰이해, 종교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평가 기준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불교는 간화선을 통한 수행이 중심이 되면서 의식과 제례 등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왔다. 불화를 그리거나 바라춤 등

을 추는 스님을 비하하며 수행자의 본연에 어긋난다고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종단 내 큰스님들이 비구·대처 분등 등 고비 때마다 수행을 강조하면서 불교계의 의식은 점차 쇠퇴해 갔다.

한 스님은 “과거에는 바라춤을 배우기 위해 억하고 있으면 선방 스님들이 무당이나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며 무형문화에 무관심했던 풍토를 지적했다. 불교계 내부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무관심과 근본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문화재청은 2010년 4월 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인정을 위한 조사·평가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표준화하고, 계량화된 평가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11년 1월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그동안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 내용과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신설된 규정은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에 따라 조사 항목이 사전에 설정돼 있다. 예를 들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단체종목의 무형문화재일 경우 23개 조사 항목과 분야별(음악, 무용, 공예, 민속) 실행능력을 조사받아야 한다. 주관적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조사 항목을 사전에 확정하



문화재 지정 예고로 연등회의 지속적 발전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졌다.

고 평가 결과를 계량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평가결과와 관련된 민원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종교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불교 무형문화유산의 무형문화재 등록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미등 스님은 “불교에서는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일상의 모든 행동이 수행이다.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것이 불교무형문화재다. 일반 무형문화와는 분명히 다름에도 확인된 평가 매뉴얼로 무형문화재를 지정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종교적 특성이 반영된 평가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이런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으면 불교무형문화의 문화재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미등 스님은 무형문화재 등록이 불교무형문화 발전과 육성을 위한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일반 사회 곳곳에 불교무형문화의 정신을 투영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스님은 “불사를 위한 문화재는 바람직하지 않다. 삶 속에서 불교가 숨 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열장 속에 갇혀 있는 문화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계종도 불교무형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종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 중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무형문화재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가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굴 및 연구 활동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불복장 의식 등 종목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 문화부 박상준 팀장은 “불교 문화재 전반의 계승, 발전,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안에 무형문화재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문화재청 후속 지원 필수”

영산재 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



영산재 보존회 회장인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사진)은 영산재 등 불교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영산재 보유자가 부족해 계승 및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문화재 지정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일운 스님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니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영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밖에도 전승회관 건립,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있다. 영산재를 생명력을 갖춘 불교무형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일운 스님은 불교무형문화의 문화재 지정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각 종단이 협력하고 공유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등회는 조계종, 영산재는 천태종으로 구분하지 말고 불교 전체의 무형문화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

정 전에 외국에 자주 나가서 공연을 하고 학술대회를 한 것이 주효했다며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준비해야하는 연등회에 이런 노력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운 스님은 “문화재 및 세계문화유산 지정 후에도 보존 및 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길이다. 불교문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불교 무형문화재 세계적 문화 예술로

해외 공연, 학술대회 통해 홍보
계승 보존·발굴·재창조해야

영산재는 불교계 유일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며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로 불교 무형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계문화유산까지 등재된 영산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영산재는 학술 세미나 및 다양한 공연을 통해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1968년 전국 무형문화재 실태를 연구하던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3일 동안 직접 봉원사(주지 일운)에 머물면서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연구진은 영산재의 힘찬 소리와 고저음이 뚜렷한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영산재는 또 국내외 학자를 초청한 학술 세미나에도 적극적이었다. 연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이론 체계와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 전파됐다.

일운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영산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면 영산재를 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영산재의 문화콘텐츠 개발의 인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해외 공연을 통해 세계인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자산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다.

김영렬 전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외래교수는 자신의 저서 <영산재의 문화콘텐츠 만들기>에서 “현대적 재해석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재창조를 통해 공연 영역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산재 원형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토대 위에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세계적 인 문화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운 스님은 “우리만의 문화재로 그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영산재와 불교문화의 의미를 세계인들과 공유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 초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 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시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물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를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하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를 받게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나 행복을 원하거나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오.

천의선도 태증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봉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념 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맡기합